

國民 讀書生活化를 통한 意識改革

安 秉 燧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독서하는 국민이라야 잘 살 수 있다. 冊을 읽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 한 나라의 國力은 그 國民의 讀書力과 비례한다. 독서하는 국민이 못하는 것을 보았는가. 책을 읽지 않는 백성이 잘 사는 것을 보았는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느냐.

成熟人이 되기 위해서요, 健全한 國民이 되기위함이요, 文化民族이 되기 위해서요, 富國強民이 되기 위해서다.

한 卷의 책이 한 인간의 運命을 變化시킨다. 決定的인 시기에 결정적인 책을 읽으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讀書不忘救國」 책을 읽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五·四運動이 일어났을 때 北京大學校의 학생이 내걸었던 標語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나라를 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독서가 우리 국민의 生活習慣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衣食住 다음에는 독서가 와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切實히 必要한 것은 국민 각자의 意識改革이요, 올바른 行動倫理의 確立이다. 새 나라를 만들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면 새로운 정신을 일으켜야 한다.

새 나라, 새 사람, 새 정신이다.

孔子는 이렇게 말했다.

「夫哀莫大於心死」

세상이 무엇보다 슬프다 슬프다 하여도 마음이 죽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 마음은 인생의 뿌리요, 나의 主人이다.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讀書生活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먼저 메모하는 習慣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 국민이 저마다 成熟人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배우고 실천해야 할 새로운 習慣 하나를 강조하려고 한다.

그것은 부지런히 메모하는 습관이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記憶力이 좋은 머리보다도 무딘 연필이 더 낫다」

한문에도 그와 비슷한 名言이 있다. 「聰明不如鈍筆」 총명한 머리가 둔한 연필만 못하다. 연필끝이 무디지만 메모를 하면 가장 정확하다.

인간의 머리는 불완전한 기관이기 때문에 왕왕 錯覺과 忘却현상을 일으킨다. 우리의 두뇌는 믿을 것이 못되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이름, 약속한 시간과 장소, 중요한 사항, 그날의 계획, 동서고금의 名言 등 열심히 기록을 해야 한다.

筆記도구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사회의 重責을 맡은 사람일수록 부지런히 메모를 해야 한다. 작고한 인물중에서 메모를 부지런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朴大統領이요, 또 한 사람은 李秉喆회장이다. 여러해 전에 慶州 普門園地에 강연을 갔다가 박대통령의 자상한 메모의 複寫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이 분이 이런데가 있었구나 하고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메모하는 사람은 세가지의 特色을 지닌다.

첫째는 면밀한 準備性과 計劃性이다. 인간은 用意周到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 확실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도 일의 실패와 차질이 생기거늘, 하물며 無準備, 無計劃의 행동에 있어서라.

둘째는 투철한 責任感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부지런히 메모를 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정확하게 하고, 실수없이 하고, 錯誤없이 하고, 빈틈없이 하고, 完璧하게 하고, 책임있게 해야 한다.

세째는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意志이다. '日日學, 日日新'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自己成長의 의욕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배운다. 배우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집이 가난하여 국민학교 1學年 밖에 못다니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平生教育과 自己教育의 강한 의지를 갖고 일생동안 獨學自習하고, 刻苦勉勵하고, 發憤忘食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座右銘을 만들고, 누구한테서나 배웠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機會로 삼아라.'

부지런히 메모를 할 때 생활이 향상하고 능력이 개발되고 교양이 풍부해지고 지식이 蓄積되고 인격이 발전하고 정신이 성장한다.

平生學習인이 되어라. 열심히 메모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세계에서 메모를 가장 부지런히 하는 것은 일본사람이다. 日本人은 기록하는 습관과 기록한 것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20여년전에 있었던 일본인의 勉話 하나를 소개한다. 일본의 항공기가 기관 고장으로 땅에 추락하여 수백명이 몰살했다. 機內에는 悲鳴과 공포의 수라장이 되었다. 阿鼻叫喚이었다. 그중에 침착한 어떤 일본인이 자기의자에 침착하게 앉아, 妻子에게 보내는 遺言書を 鉛筆로 썼다. 「지금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고 있소. 나의 생명이 20초 남았소. 여보, 내가 죽거든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유언서를 쓰다가 죽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에 손님들의 짐을 챙기던중 그 유언서가 발견되었다.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絶望的인 절박한

상황속에서 처자에게 유언서를 남긴 그 일본인의 행동은 참으로 침착하고 놀라웠다. 그 유언서가 일본의 모든 신문에 토론키사로 났고, 한국의 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다.

絶對絶命의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기록하는 습관이 심히 부족하다. 항상 필기도구를 몸에 지니고 부지런히 메모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先進國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意識, 어떤 行動倫理를 가져야 하나.

나는 자리와 구실의 2大原理를 강조한다.

저마다 제 자리를 알고 제 자리를 지키고 제 말은 구실을 다 해야 한다.

제 자리를 지키어라. 제 구실을 다하여라. 이것이 富國強民이 되는 근본이다.

자리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나.

일자리다.

술먹고 노는 자리, 한가롭게 도박이나 하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業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이 무엇이나. 직업이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직업에서 보낸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일에 矜持와 보람과 使命感을 느끼면서 자기 직책에 헌신하고 몰두하는 사람이다.

가장 健全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저마다 자기의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業을 즐기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회다.

해방 직후에 우리는 絶對貧國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한심한 나라였다. 우리는 40餘年 동안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였다. 우리는 勤儉의 모자를 쓰고, 부지런의 허리띠를 매고, 力行的 신발을 신고, 일에 專心專力했다. 땀으로 大地를 갈고,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協同으로 산업을 일으켰다. 우리는 가난을 몰아내고 빈곤을 추방했다. 後進國을 벗어나 中進國의 앞장에 서서 先進社會에 돌입하려고 분투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南韓은 미국땅의 1/91이요, 중국 영토의 1/95이요, 소련의 1/225이요, 일본의

1/3.8 밖에 안되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賦存資源의 가난한 나라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경제규모가 세계의 15位요, 무역규모가 12位요, 鐵鋼生産은 11位를 차지하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제조업분야의 기술자의 適當 평균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다.

20세기 후반에 세계 3大 경제기적이 일어났다. 첫째는 라인강의 기적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기적이요, 셋째는 漢江邊의 기적이다.

우리의 國力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미국의 조지타운대학의 國際戰略問題 연구소장인 클라임 교수는 國勢大觀이라는 책자에서 남한의 국력을 세계 13位로 평가했다. 동북아시아의 교통의 要衝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과거 1300년 동안에 7大 國難을 겪었다. 隨煬帝의 침략, 唐太宗의 침공, 如眞의 침입, 몽고의 來侵, 淸나라의 來襲, 임진왜란, 일본에 의한 망국의 비극 등 엄청난 국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민족의 脈을 잇고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였다. 民族保衛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고 얼마나 뜨거운 피를 흘렸던가.

勤勉은 興國의 길이요, 나태는 亡國의 길이요, 모든 위대한 것은 勤儉力行的 상물이다.

땀이 기적을 창조한다. 노는 사람을 없애자. 노는 땅을 없애자. 노는 머리를 없애자.

‘一勤天下 無難事’라고 우리의 先人은 말하였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고 唐나라의 名僧 百丈 禪師는 간파하였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내가 독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마디밖에 없다. 독일 젊은이들이여, 일하여라. 좀 더 일하여라. 끝까지 일하여라.」

독일 統一의 歷史的 大業을 성취한 위대한 정치가인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지켜야 할 行動原則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지 말자요, 둘째는 놀지 말자입니다. 이것을 2大信條로 삼고 살아갑시다.」

뛰어난 先覺者 島山 선생의 말이다.

근면의 나무에 번영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한국인’이라고 대답하자.

勤儉力行은 富國強民의 어머니요,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만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알 림

박준식 교수(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1976년에 발행한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의 후속편으로서 「한국문헌정보학 색인 1975-1992」를 편찬 발행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색인의 보다 완벽한 수록을 위해 회원들께서 동기간(1975-1992) 중 출판 또는 발표한 단행본, 논문기사, 학위논문 등에 대한 완전한 서지적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 준 식
(053-580-5435)